

##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재구성\*

— 의도 개념을 중심으로

신 현 주\*\*

### [초 록]

예술작품의 의미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미학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이다. 양측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의도주의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며,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반의도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의미 결정에 무관하다. 이 논쟁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각자의 주장이 한정된 전제 하에서만 타당해지는 경우에도 상대에게 그 전제를 설득하지 않고 논의를 강행하면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강사

주제어: 예술작품의 해석, 의도주의, 반의도주의, 의도의 환원주의, 의도의 비환원주의, 작가의 의도에 관한 실재론, 작가의 의도에 관한 반실재론  
Interpretation of Artwork, Intentionalism, Anti-Intentionalism, Reductive Theory of Intention, Non-Reductive Theory of Intention, Realism about Author's Intention, Anti-Realism about Author's Intention

서 해결이 나지 않을 듯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각 진영에서 전제되고 있는 ‘의도’ 개념을 드러내고, 그것이 좋은 해석 이론의 구성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을 그 안에서 전제되고 있는 상이한 의도 개념들을 밝히면서 재구성한다.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던지는 두 공격을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와 ‘무관련성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히고, 의도주의가 대안적 의도 개념을 이용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고찰한다. 후자에 대해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전제함을 밝히고, 의도주의가 반실재론을 도입하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후 인식론적 문제에 관해서는 의도주의가 우세하나 무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쪽도 우세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이 논쟁의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격전지가 어느 곳인지 진단한다.

## 1. 들어가며

예술작품의 의미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미학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은 의도주의(intentionalism)와 반의도주의(anti-intentionalism) 사이의 논쟁이다. 양측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허쉬(E. D. Hirsch)를 필두로 하여, 율(P. D. Juhl), 냅과 마이클즈(Steven Knapp and Water Michaels), 어윈(William Irwin)으로 이어지는 의도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며,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면 비어즐리와 워셋(Monroe Beardsley and William Wimsatt), 디키와 윌슨(George Dickie and Kent Wilson)으로 대표되는 반의도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지 않다. 반의도주의는 작품의 의미가 언어의 공적인 요소, 관행, 맥락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가에 비례하여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의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의미 파악에 있어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한다.

위와 같은 대립적인 두 진영 간에 발생한 논쟁은 20세기 중반에 시작하여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초기 고전적 형태의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대부분의 고전적 형태들이 그렇듯이 ‘극단적’ 의도주의와 ‘극단적’ 반의도주의로 불린다. 극단적 의도주의는 의미 해석에 있어 작가의 ‘실제(actual)’ 의도가 ‘항상’ 유관하다고 주장하며, 반면 극단적 반의도주의는 ‘결코’ 유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협을 모르는 양측의 중간 지대에 다수의 온건한 ‘수정적(revised) 입장’들이 등장했고, 최근까지 톨허스트(William Tolhurst), 네하마스(Alexander Nehamas), 캐롤(Noël Carroll), 레빈슨(Jerrold Levinson), 커리(Gregory Currie) 등이 여러 형태의 수정적 입장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온건한 수정적 입장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고, ‘온건성’의 정도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정적 입장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주장을 지목하는 것이 어려우며, 논쟁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제 극단적 의도주의와 극단적 반의도주의 사이의 논쟁과 더불어, 극단적 의도주의와 수정적 입장들, 극단적 반의도주의와 수정적 입장들, 심지어 수정적 입장들 내의 논쟁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논의 진행을 들여다보면 참여자들 간에 진정한 이해가 선행되었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자의 주장이 자신이 의존하는 한정된 철학적 전제들 위에서만 타당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그 전제들을 설득하지 않고 논의를 강행하면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은 해결이 나지 않을 듯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논쟁의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한 자들이 사용하는 ‘의도’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의도’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작가의 구체적 예술적 구상, 불명확한 소망, 장기적 비전, 즉흥적 영감, 무의식적 욕망, 의식적 결심 등을 몽뚱그려서 지칭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들 중 하나를, 다른 경우에는 이들 중 또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정확히 어떤 의도 개념 위에서 논의하는지에 대해 동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시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이 이 논쟁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에서 전제되는 의도 개념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논쟁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논쟁이 ‘해석’에 관한 논쟁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상이한 ‘의도’ 개념의 충돌임을 드러낼 것이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격전지는 어느 곳이어야 하는지도 밝힐 것이다. 2장에서는 현대 심리철학에서 등장한 의도에 관한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를 살펴볼 것인데, 이는 3장에 등장할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가 전제하는 의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다. 3장에서는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제기하는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가 설명된다. 필자는 이 문제가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의도주의자는 대안적 의도 개념들(2장에서 설명되는 환원주의적 혹은 비환원주의적 개념들)을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반의도주의가 자주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인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는 어떠한가? 4장에서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제기한 무관련성 문제가 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전제해야만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의도주의가 반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필자는 인식론적 문제에서는 의도주의가 우세할 수 있으나, 무관련성 문제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우세로 결론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진정한 격전지는 무관련성 문제이며, 특히 양측에서 전제하고 있는 반실재론적 혹은 실재론적 의도 개념에 대한 고찰 없이는 논쟁의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 2. 의도에 관한 두 이론: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

해석에 관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 본 장에서 필자는 현대 의도 이론의 두 주류인 데이비슨의 환원주의와 브래트만의 비환원주의를 설명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해석에 관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가 각각 ‘어떤 의도 개념을 전제하면서’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인데, 본 장이 다음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1. 데이비슨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은 행위(action)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적 견해를 반박하면서, ‘욕구-믿음(Desire-Belief) 모델’로 알려진 자신의 환원주의적 이론을 전개한다. 데이비슨의 의도 이론은 행위와 관련되어 전개되므로, 먼저 행위에 대한 그의 주요 견해를 살펴보자.<sup>1)</sup> 데이비슨은 행위의 설명 방식에 관해 일반인들의 직관에 잘 부합하는 상식적인 관점을 옹호하겠다고 운을 띄우며 시작한다. ‘준열은 과일을 꺼내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와 같은 설명 방식을 살펴보자.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이러한 방식으로 행위를 설명하곤 한다. 이 방식은 행위자가 행위를 수행한 이유(reason)를 언급함으로써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데이비슨은 이를 합리화라고 부른다. 이어 그는 이러한 합리화적 설명 방식(rationalizing explanation)이 또한 일종의 인과적 설명 방식(causal explanation)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의 ‘이유’는 그것이 행위의 ‘원인’이 됨으로써 그 행위를 설명한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준열은 과일을 꺼내고 싶어서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행위자의 이유(과일을 꺼내고자 함)를 언급함으로써 행위(냉장고 문을

1) Davidson, D (1963), “Actions, Reasons, and Causes”, *The Journal of Philosophy* 60, pp. 685-700.

몹)를 설명하는 ‘합리화적 설명’인데, 이 방식은 또한 ‘행위자의 이유(과일을 꺼내고자 함)가 행위(냉장고 문을 열)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즉, 행위와 이유 사이의 관계는 합리화적이며 동시에 인과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와 이유가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행위가 이유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다는 데이비슨의 주장은 그가 말하듯이 상식적으로 들린다. 생각해 보라. 행위자에게는 어떤 행위를 수행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고자 함’, ‘냉장고 청소를 하고자 함’, ‘찬바람을 쐬고자 함’ 등이 냉장고 문을 여는 행위의 여러 가능한 이유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중 특정한 어느 한 이유(과일이 먹고자 함)가 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다른 이유들이 아닌 바로 그 이유가 ‘행위에 대한 합리화적 설명 내에서 이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때 그 특정한 이유를 여타의 이유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들이 아닌 바로 그 이유가 문제의 행위를 야기했다’는 특성 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것 이외에 특정 행위를 설명하는 바로 그 이유(과일을 먹고자 함)와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이유들(냉장고를 청소하고자 함, 찬바람을 쐬고자 함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가? 따라서 데이비슨은 어떤 행위에 대한 ‘합리화적 설명 내에서 이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자가 행위의 ‘이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치 그 이유가 하나의 독자적인 심적 상태(예를 들어 ‘과일을 먹고자 함’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심적 상태)인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슨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은 곧 1) 문제의 행위가 특정한 속성 F를 가진다는 믿음, 2) 속성 F를 가지는 행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욕구, 바람, 원함 등),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준열의 행위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은, 1) 그가 냉장고 문을 여는 행위는 ‘과일을 먹게 해줌’이라는 속성을

가진다고 믿고, 또한 2) ‘과일을 먹게 해줌’이라는 속성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다시 말해 1)의 믿음 및 2)의 태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데이비슨에게 행위의 이유란 ‘믿음과 태도’라는 두 심적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쌍을 ‘주된 이유(primary reason)’라고 부른다.

이 지점에서 데이비슨의 의도에 대한 이론이 드러나는데, 그에 따르면 행위의 의도(intention)를 아는 것은 곧 행위의 주된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비슨이 말하는 주된 이유가 믿음과 태도의 한 쌍으로 구성됨을 유념하면, 의도에 대해 논하는 작업은 결국 문제의 행위와 관련된 믿음과 태도를 밝히고 상세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의도에 대한 ‘환원주의적(reductive)’ 접근으로서, 의도라는 하나의 고유한 심적 상태를 인정하고 그 상태 자체의 독자적 특성, 역할, 다른 심적 상태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라 부르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그와 관련된 믿음과 태도라는 두 심적 상태들에 대한 이해로 온전히 얻어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는 “~의 의도를 가지고(with the intention of) 어떤 행위를 한다”와 같은 표현들은 의도라는 하나의 심적 상태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그것의 주된 이유(즉 그 행위와 관련된 믿음과 태도)를 통해 재기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그 표현은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다른 진술을 재기술하는 기능으로서만 작용하는 공의어적(syncategorematic) 표현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심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심적 상태와 사건들 중에서 믿음과 태도는 존재하지만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2.2. 브래트만의 비환원주의적 의도 이론

데이비슨의 환원주의적 의도 이론을 비판하면서 비환원주의적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이론은 마이클 브래트만(Michael Bratman)이 있다. 브레

트만이 데이비슨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은 그가 의도하기라는 심적 상태를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실제적인 내적 상태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브래트만이 의도하기라는 심적 상태의 존재를 옹호하는 방식을 살펴 보면 그가 전형적인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심적 상태에 대한 기능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일상에서 우리가 기능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의 예로 ‘엔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엔진의 개념은 엔진이 어떤 물리적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그것이 전기를 사용하는지, 증기를 사용하는지, 철로 만들어졌는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와 관련이 없다. 그 대신 엔진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역할(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기계적 힘이나 운동으로 변환하는 역할) 기술을 포함한다. 이렇게 인공물에 대한 개념이 역할 기술에 의해서 명시되는 경우를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심성에 관한 기능주의’는 그러한 접근을 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능주의자가 어떤 심적 상태를 ‘고통’으로 확인할 때, 그들은 유기체의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그 상태가 담당하는 특정한 기능 혹은 역할, 예를 들어 ‘조직 손상 감지’와 같은 것을 기술함으로써 명시한다. 여기서 기능주의가 말하는 ‘역할을 기술함’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능주의에서 한 심적 상태의 기능은 고립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심적 상태들과 어떤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의해서 문제의 심적 상태의 역할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상태는 신체 손상이라는 입력 상태와 전형적인 고통 행동(피하고 소리 지르는 등)이라는 출력 상태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두 상태를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자리에 위치한다는 사실로 인해, 조직 손상 감지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어떤 한 심적 상태를 둘러싼 인과적 관계의 망에 대한 전체적 이해 없이, 고립적인 방식으로 그 상태의 기능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기능주의자들이 심적 상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상태의 기능에 주목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기능주의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규정된 심적 상태들이 주체의 지각 및 행동과 인과적 그물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의 외부 세계와도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총체적인 인과적 그물 내에서 특정한 위치(즉 다른 심적 상태들로부터 야기되고 또한 다른 심적 상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세계의 인과적 그물 내에서 이러저러한 인과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실재한다고 보는 기능주의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심성에 관한 기능주의의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러한 특성들을 유념하면서 의도하기라는 고유한 심적 상태의 존재를 주장하는 브래트만의 논증을 따라가 보자.<sup>2)</sup> 그에 따르면, 외부 세계와 연결을 맺고 있는 한 개인의 인과적 과정의 그물 내에서 우리는 의도하기가 맡은 고유한 기능을 명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도하기를 계획하는 존재(planning agent)로서의 인간이 행하는 ‘합리적 심사숙고(rational deliberation)’라는 인과적 과정의 그물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명시한다. 브래트만은 의도하기라는 심적 상태는 욕구나 믿음의 상태로는 환원될 수 없다고 하면서 데이비슨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브래트만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를 계획하는 존재인데, ‘미래’에 대한 합리적 심사숙고와 관련된 인과적 과정 속에서 의도하기라는 심적 상태가 담당하는 기능은, ‘현재’ 발생한 행위를 설명하는 욕구와 믿음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래에 대한 합리적 심사숙고라 간주되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 속에서 다른 심적 상태들이 점유할 수 없는 의도하기의 독자적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Bratman, M. (1987), *Intention, Plans, and Practical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브래트만은 우리가 의도하기라는 특유한 심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심리학을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데이비슨처럼 의도하기를 믿음과 욕구로 환원하는 이론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동물들의 의도(예를 들어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는 고양이의 의도)를 설명할 때에는 충분하다. 동물의 의도를 밝히는 일은 동물의 현재 행위를 설명하는 믿음과 욕구를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도는 현재의 행위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미래의 행위를 의도하며 그에 맞추어서 현재의 행위나 사고 등을 조정한다. 이에 브래트만은 ‘계획하기’라 불릴 수 있는 인과적 과정의 그물 내에 위치하는 하나의 고유한 심적 상태로서의 의도하기를 인정하는 이론만이 인간의 심리학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의도의 계획 이론’이라 부른다.

브래트만 이론의 성공은 의도하기의 독자적 기능이 있음을 보이는 데 달려있고, 실제로 그는 이를 보이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가 제시한 의도하기의 고유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에 따르면 의도는 ‘추론중심적 구속(commitment)’과 ‘의지적 구속’이라는 두 측면을 지닌다. 우선, 추론중심적 구속은 다음의 세 요건을 포함한다. 첫째, 새로운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존의 의도를 수정하거나 재고하지 않는다, 둘째, 의도가 실행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천적 추론을 발휘한다, 셋째, 고려되고 있는 의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을 배제한다. 한편, 의지적 구속에 대해 그는 의도라는 심적 상태는 단순히 행위에 영향(influence)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control)한다는 의미에서 의지적 구속을 지닌다고 말한다. ‘의도가 행위를 통제한다’는 그의 견해는 다수의 비판가들에 의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을 받는 만큼 완벽한 이해는 쉽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내가 지금 A를 하고자 의도한다면, 내 의도는 적어도 A를 시도하게끔 나를 이끈다”<sup>3)</sup>라는 그의 말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의도라는 상태는 (욕구와는 달리)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행위를 산출하는 구속력을 지닌다는(그 행위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 없이) 뜻으로 이해한다.

### 3.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와 의도주의의 대응

지금까지 살펴본 두 유형의 의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예술작품의 의미 해석과 관련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을, 그 안에서 사용되는 의도 개념을 드러내면서 재구성 해보겠다. 양측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는데, 의도주의는 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보며, 반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의미 결정에 무관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양측을 매우 단순히 가르는 것일 뿐, 최근의 논쟁은 극단적 의도주의, 극단적 반의도주의, 온건한 수정적 입장들이 혼재되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자의 주장이 자신이 의존하는 한정된 철학적 전제들 위에서만 타당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철학적 전제를 설득하지 않고 논의를 강행하면서 이 논쟁은 해결이 나지 않을 듯이 계속되는 것이다. 2장의 예비적 고찰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의도에 대한 개념은 하나가 아니다(데이비슨과 브래트만을 대표로 언급했지만, 당연히 그 외에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해석’에 관한 논쟁이지만, 각자가 전제하는 ‘의도’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고찰이 논쟁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3장과 4장에 걸쳐 필자는 양측에서 전제되

---

3) Bratman (1987), p. 108.

는 의도 개념들을 밝히면서 논쟁을 재구성할 것이다. 논쟁의 재구성은 반의도주의에서 시작한다.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제기하는 핵심 공격들을,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와 ‘무관련성 문제’로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전자를, 4장에서는 후자를 다룬다. 이러한 재구성 작업을 통해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이 ‘해석’에 관한 논쟁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도’ 개념의 충돌임이 드러날 것이다.

### 3.1.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이다.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 우리는 작가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창작 행위를 하면서 작가가 특정 의도를 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도대체 우리가 그 의도에 어떻게 접근한단 말인가? 작가의 의도는 오직 그 사람에 의해서만 사적으로 접근되는 내밀한 심적 상태가 아닌가? 작가가 남긴 일기장이나 편지 등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작가는 의도를 숨기고자 일기장이나 편지에 거짓말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가가 직접 되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결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다분히 데카르트적인 심성 개념, 즉 인간은 물리적인 육체와 비물리적인 정신이라는 두 실체를 함께 지니며(심신실체 이론), 물리적인 육체는 1인칭과 3인칭적 관찰을 동일하게 허용하지만 비물리적인 정신은 오직 1인칭의 특권적(privileged) 관찰만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각자 자신의 심리 세계와 관련해서는 권위적인 지식의 소

유자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심리 세계와 관련해서는 결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디키와 윌슨이 의도주의자인 허쉬를 비판하면서 “허쉬의 이론은 타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들(God-like creatures)의 언어 이론으로서는 작동할 수 있겠다”<sup>4)</sup>고 말할 때,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이다.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의 문제점은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고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실한 기독교인을 제외한다면) 거의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로는, 데카르트의 심성 개념이 정신과 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 타인의 심리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얻기 힘들다고 본 점, 타인이 심성을 지닌 존재인지조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이용해 의사소통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이 있다.<sup>5)</sup>

의도주의자라면 인식론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이 이미 논박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의도주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의도에 관한 대안적인 유효한 견해들을 이용해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2장에서 데이비슨과 브래트만의 의도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개념들을 이용해 의도주의가 어떻게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

4) Dickie, G. and Wilson, W. (1995),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Beardsle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 pp. 233-250.

5) Ryle, G. (1949),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

### 3.2.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데이비슨적(환원주의적) 의도주의의 답변

데이비슨에 따르면 의도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한 심적 상태가 아니다.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믿음과 욕구의 한 쌍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독일군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개인의 심적 상태들의 목록을 조사하여 창작 당시의 의도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엄청난 행운으로 그러한 목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목록 안에 ‘의도’라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독일군이 보이지 않게 촬영함’이라는 그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믿음과 욕구의 한 쌍이 무엇인지 지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에 대한 위협(독일군)이 불러오는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싶음’이라는 욕구, 그리고 ‘생존에 대한 위협(독일군)의 물리적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그러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믿음을 집어낼 수 있다. “~의 의도를 가지고 독일군을 보이지 않게 촬영함”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은 마치 하나의 심적 상태로서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의 행위를 그것의 주된 이유(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믿음과 욕구)를 통해 합리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데이비슨적(환원주의적) 의도주의자라면, 작가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것은 어떤 사적인 내밀한 심리 상태에 접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특정 행위를 합리화하는 믿음과 욕구를 상세화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식론적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반의도주의자들은 데이비슨의 이론 내에서 적어도 ‘믿음’이나 ‘욕구’가 (의도와는 달리) 심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작가의 사적인 믿음이나 욕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의도 개념을 받아들이는 의도주의자도 인식

론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반론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의존한 반론이며,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도주의는 인식론적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다. 타인의 심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론적 위치’가 그 사람의 심적 상태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구성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인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기억상실증 환자는 기억상실증 환자대로, 각자 자신의 심적 상태들에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심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론적 위치가 어떤 개인의 심리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심리에 대해 적절한 이론을 구성할 수 없다는 회의론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반의도주의자는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데카르트적 심성 이론을 따르면 그러한 회의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 만일 반의도주의의 주장이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만 적절한 심리학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지, 타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작가의 의도를 타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와 다르게 취급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의도주의자가 인식론적 문제를 통해 의도주의를 공격할 때, 타인의 심리 일반에 관한 회의론을 자신의 견해가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3.3. 데이비슨적(환원주의적) 의도주의의 문제점

데이비슨 이론에 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의도(intention for future)’를 설명하거나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데이비슨적 의도 개념을 도입하는 의도주의자는 불가피하게 동일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즉, 예술가의 의도가 장기적인 예술적 방향성에 대해 계획하고, 현재의 작품을 만들에 있어 그 계획에 비추어 중요한 선택들

을 행하며, 현재의 행위들과 미래의 행위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데이비슨적 의도 개념을 도입하는 의도주의자는 적절히 설명하거나 논의하지 못하게 된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 이유는 데이비슨의 이론이 ‘의도적 행위(intentional action)’에 대한 이론이지 ‘무언가를 하고자 의도하기(intending to do something)’라는 심적 상태에 대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후자는 바로 브래트만의 이론이다). 데이비슨은 ‘의도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믿음과 욕구’를 의도라고 보며, 현재 어떤 행위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면서 앞으로의 심적 상태들 및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심적 상태로서의 의도하기를 부정한다. 즉, 아직 어떤 행위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무언가를 행하고자 순수하게 의도하는, 그리고 그에 맞추어 여타의 상태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심적 상태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데이비슨 이론의 명백한 단점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적어도 3년 안에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를 의도하는데, 이 의도는 ‘내일 요리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야지’, ‘학원비를 모아야 하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등의 다른 심리 상태들을 그 생각에 맞추어 정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계획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무언가를 하고자 의도하기’ 개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비슨의 이론은 최상의 이론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데이비슨 이론의 문제점은, 의도주의자가 데이비슨의 의도 개념에 의존한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도주의자가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할 때, 오직 “‘장미’라는 단어를 타이핑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믿음과 욕구가 바로 그 작품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수준일 뿐, ‘인간의 어두운 감정을 꽃들로 비유해 표현하려는 작가의 장기적 예술적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작품은 이러저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노선의 해석적 가능성을 차

단한다면, 과연 그러한 해석 이론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의도주의가 좋은 해석 이론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 타이핑한 행위 이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데이비슨의 의도 이론을 받아들이는 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는 대신, 데이비슨 이론의 문제점인 미래를 향한 의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의도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브래트만의 이론이 의도주의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3.4.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 브래트만적(비환원적) 의도주의의 답변

이제 브래트만의 비환원적 의도 개념에 의존하는 의도주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우선, 브래트만의 의도 이론이 어떤 점에서 데이비슨의 이론과 차별되는지 상기해보자. 첫째, 그는 의도하기라는 독자적인 심적 상태의 존재를 옹호한다. 둘째, 그는 의도하기라는 상태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여타의 상태들을 그에 맞게 정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만일 의도주의자가 브래트만을 받아들인다면 위의 두 특성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얻게 된다. 첫째, 브래트만의 이론은 데이비슨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반의도주의에 의해 제기되는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브래트만의 이론에서 의도는 주체의 인과적 과정의 그물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심적 상태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술가의 사적인 의도를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 반의도주의의 질문에, 브래트만은 그 예술가가 지닌 인과적

과정의 네트워크를 충실히 그려내어 그 안에서 의도의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즉 데이비슨과 마찬가지로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가 전제하고 있는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의도주의자는 예술가의 총체적 인과적 과정의 파악 없이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브래트만 이론의 귀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의도가 그의 이러저러한 생각, 결심, 믿음, 기억, 욕구, 희망 등과 관계 내에서만 확인된다는 주장은, 반의도주의자가 그토록 거부하는 ‘예술가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들에 대한 전기적(biographical)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의도주의에 호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언짢음은 일리가 있다. 브래트만의 이론은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이를 위해 작가의 심리적 상황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의도주의에 호의적이다.

둘째, 브래트만의 이론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심적 상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의도를 설명함으로써, 행위와 관련해서만 의도를 설명할 수 있었던 데이비슨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때문에 브래트만의 의도 개념을 받아들이는 의도주의자라면, 아직 직접적인 예술 창작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예술가를 이끌고 형성하는 장기적인 예술적 구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얻게 된다. 물론 반의도주의자는 해석자가 그러한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의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전혀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의도주의자라면,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풍성하고 깊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즉 “장미”라는 글자를 타이핑하는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작가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고 간주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브래트만의 이론은 작가의 의도 개념에 장기적 예술적 계획을 포함함

으로써 의도주의자가 원하는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의도 개념을 제공해 준다.

### 3.5. 정리

지금까지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인식론적 문제가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였고, 대안적인 의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도주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데이비슨과 브래트만의 이론은 의도를 명확히 지목할 수 있는 환원적이거나 비환원적인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주의가 인식론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이론 중에서는 브래트만의 이론이 의도주의를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다.

## 4.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와 의도주의의 대응

### 4.1.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도주의는 문제가 많은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반면 보다 현대적인 데이비슨과 브래트만의 이론이 의도주의에 호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이 사실이라 해도, 이 시점에서 의도주의의 승리가 선언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측의 논쟁은 여러 논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해서 의도주의가 잘 대응했다고 해서, 논쟁의 모든 지점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또 다른 지점으로 이

동해,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더 강력한 문제를 살펴보자.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 해석자가 이런저런 심리철학이나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작가의 의도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 자체는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의 의미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리하여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다 해도, 그 의도가 작품의 의미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작가의 의도가 장기적인 예술적 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밝혀진다 해도, 혹은 발생한 행위에 관련해서만 밝혀진다 해도, 그것은 작품의 의미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앞서 제기된 인식론적 문제와 함께 반의도주의의 주축을 이룬다. 반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가 밝혀지건 아니건 간에, 혹은 훌륭하건 형편없건 간에,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작품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작품 그 자체의 의미’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의미와 ‘작가가 의도한 의미’가 어긋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둘의 일치를 주장하는 의도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 둘이 어긋남이 가능한 이유로 반의도주의는 첫째, 예술가는 실력 부족이나 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를 작품에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음을, 둘째, 작품이 위치한 공적인 언어 관행이 어떤가에 따라, 작품은 작가가 생각지 못했던 의미를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셋째, 심지어 예술가의 의도가 부재하는 경우에도(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랜덤하게 구성된 글 다발) 그 글 다발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6)</sup> 그러나 반의도주의는 단지 작가의 의도와 작품 자체의 의미가 어긋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6) Beardsley, M. (1970),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 18-20.

보이는 데에서 머물고자 하는 이론이 아니다. 반의도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어긋남의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물으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첫째, B를 의도한 작가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한 탓에 오히려 우리는 작품으로부터 A를 읽게 되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작품의 의미라고 하겠는가? 둘째, 공적인 언어 관행에 비추어 보면 작품의 의미가 A이지만 작가만의 독특한 언어 용법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가 B라면, 당신은 무엇을 작품의 의미라고 하겠는가? 셋째, 언어의 공적 요소를 통해 그 뜻을 A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글 다발이 있는데, 그 글을 컴퓨터가 혹은 자연의 풍화작용이 썼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 글 다발의 의미는 A인가? 아니면 의미를 의도한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A를 선택하게 하려고 고안된 질문들이다. 즉, 언어의 공적 요소들을 통해 결정된 의미를 선택하고 작가의 의도를 거부하도록 고안된 질문들이다.

반의도주의의 이러한 전략, 즉 작가가 의도한 바와 작품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어긋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인 후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 전략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한 논증 없이 다수의 일반 감상자들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직관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슈즈트라>라는 작품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며칠 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상세히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예술작품이 혹평을 받으면 으레 작가의 의도 공개가 뒤따른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상당수 대중들은, ‘당신이 그것을 의도했을지는 몰라도 작품 자체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면 인터뷰가 아닌 작품 내에서 전달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는데, 반의도주의의 논증은 우리가 가진 그러한 직관에 강하게 호소한다.

동일한 직관이 비어즐리와 워셋이 ‘시를 평가하는 것은 기계를 평가하

는 것과 같다<sup>7)</sup>고 지적하면서 전개하는 논증 속에서 발견된다. 어떤 기계를 세탁기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탁기로 만들고자 하는 엔지니어의 의도인가? 아니면 그 기계가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직관은 당연히 ‘그 기계가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로 기우는데, 비어즐리와 워셋은 바로 이 직관에 호소하면서 시의 경우에도 의미는 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언어의 공적 관행들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종종 ‘의도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비어즐리와 워셋의 다음과 같은 논증에도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직관에 호소하는 것 이상의 정당화는 등장하지 않는다.

**의도의 딜레마:**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작품에 충분히 구현한 경우, 둘째, 작가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 우리는 작품 밖으로 나가 작가가 실제로 품었던 의도를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작품 안에 작가의 의도가 모두 구현되었는데, 왜 굳이 작품 밖으로 나가서 의도를 따로 찾으려는 수고를 하는가?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구현되는 데 실패한 의도를 굳이 찾아내어 그 의도가 작품의 의미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구현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은 작품 내에서 그 의도를 찾을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작품 내에서 찾을 수조차 없는 것을 작품의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작가의 의도가 작품 내에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모두, 우리는 작품 밖으로 나가 작가가 실제 지녔던 의도를 따로 알아낼 필요가 없다.<sup>8)</sup>

7) Wimsatt, W. and Beardsley, M. (1946),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54, p. 469.

8) Wimsatt and Beardsley (1946), p. 469.

지금까지 우리는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반의도주의의 큰 주축을 형성하는 것이 인식론적 문제와 무관련성 문제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의도주의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무관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 경우 일견 의도주의가 불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반의도주의는 작가의 의도가 존재함을, 그리고 그것이 데이비슨이나 브래트만 이론 등의 도움으로 포착가능함을 완벽히 인정한 후에도, 여전히 무관련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도주의가 이리저리한 이론들의 도움을 받아 작가의 의도를 명확히 규명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의도주의가 무관련성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다. 오히려 무관련성 문제의 힘은, 작가의 의도가 규명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의 직관에 호소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관련성 문제와 관련해 반의도주의가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곧 밝혀지게 되겠지만,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무관련성 문제는 실재론적 의도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가 반실재론이나 도구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애초에 무관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4.2.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에서 발견되는 의도에 관한 실재론

무관련성 문제에서 작동하고 있는 직관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반의도주의는 작가가 의도한 의미와 작품 그 자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경우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이때 반의도주의가 믿고 있는 것은 ‘작품 안에서 구현되는 데 실패한 작가의 의도를 굳이 자비롭게 작품의 의미라고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다. 그런데 이 직관에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에 관한 실재론(realism)을 찾아볼 수 있다. 문제의 직관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는 우리의 해석이나 구성 작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가가 오롯이 소유한 어떤 것'이다. 즉 창작의 순간이나 과정상에 있는 작가에게 속하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해석이나 구성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발견하거나 찾을 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과거의 어느 한 순간 작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서 해석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무관련성 문제를 지탱하고 있는 직관은 다름 아닌 의도에 관한 실재론이다. 비어즐리가 "예술가의 의도란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심리적 상태나 혹은 사건들이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들, 작품 제작 전이나 제작의 과정에서 그가 작품에 대해 상상했던 혹은 그려보았던 방식이다.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계획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의 멜로디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예술가의 의도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 설명에서 작가의 의도에 관한 실재론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sup>9)</sup>

실재론적 의도 개념은 반의도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 우리에게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작가의 의도라는 '(해석자의) 심성-독립적인(mind-independent) 대상'이 있어야만, 그것이 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불일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의도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도에 대한 반실재론적 혹은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는 '해석자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존재한다. 반실재론자인 스탠리 피시(Stanley Fish)는, "해석은 텍스트들, 사실들, 작가들, 그리고 의도들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 한때는 해석을 통제하는 권한을 두고 경쟁했던 실제들이(텍스트, 독자, 작가) 이제 해석의 산물이 된다"<sup>10)</sup>고 말하면서, 해석이 의도보다 더

9) Beardsley, M. (1981),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2nd e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p. 17.

근원적임을, 그리고 의도는 해석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철학의 다른 분야들에서 진행되는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의 핵심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도에 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대립은 ‘(해석자의)심성-독립적인 작가의 의도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반의도주의가 그런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불일치할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반실재론을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실재론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무관련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까? 반실재론에 의존하는 의도주의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무관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지금부터 반실재론을 택하는 의도주의의 한 예로 그레고리 커리의 의도주의를 살펴보겠다.

#### 4.3. 의도에 관한 반실재론을 수용한 의도주의: 커리의 해석 이론

그레고리 커리(Gregory Currie)의 의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술작품에 대한 그의 존재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예술작품을 대상이 아닌 행위(action)라고 주장하는 존재론을 전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술작품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면서 따랐던 “체험적 경로(heuristic path)”, 즉 특정 예술사적 전통 내에서 특정 예술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로 상에서 발생한 행위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귀결한다. 상이한 체험적 경로 상에 위치한 두 소설가가 우연히 첫 단어에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소설들을 창작한 경우, 커리의 존재론은 그 두 소설이 서로 다른 소설이라고 말한다. 예술작품을 개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는 대신 그것을 창작하는 ‘행위’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귀결이

10) Fish, S. (1982),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6-17.

도출될 수 있다. 커리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론은 ‘무엇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문제를 예술작품을 논할 때 진지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가의 성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된다.<sup>11)</sup>

위와 같은 존재론을 바탕으로 커리는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특정한 체험적 경로 위에서의 작가의 창작 행위를 가장 합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해석이란 왜 작가가 특정 체험적 경로 위에서 특정 창작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자에게 주어진 ‘대상으로서의 작품(커리는 이를 텍스트라 부른다)’을 근거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커리는 이 가설은 결국 작가의 의도에 대한 가설이라고 본다(여기에서 우리는 커리가 사용하는 숨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정합적 설명을 한다는 것은 곧 의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커리가 그러한 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정리하자면, 커리의 이론에서 예술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작품(즉 텍스트)을 창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 의도를 실현하려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작가의 행위에 대한 가장 정합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그러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다.<sup>12)</sup>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가설에서 언급되는 작가의 의도는 작가의 실제(actual) 의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커리의 이론에서 해석자는 작가의 실제 의도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커리의 반실재론적 이론 내에서 작가의 실제 의도라는 개념은 등장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의 이론 내에

11) Currie, G. (1988), *An Ontology of Art*, London: Macmillan.

12) Currie, G. (1993), “Interpretation and Objectivity”, *Mind* 102, new series, pp. 413-428.

서 작가의 의도는, ‘A라는 행위를 한 작가가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B라는 의도의 소유자일 것이다’와 같은 해석자의 추론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지, 선-해석적으로 작가에 의해 ‘실제로 소유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혹자는 커리 이론이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그 결과 세상의 사실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줄어들거나 위협받는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실재론자에게 이것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들에게 해석의 목표는 세상에 대한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행위자의 산물로 작품을 간주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경험’을 더 가치 있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에서 박장대소를 일으키는 구절을 접할 때, ‘어떤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예술가가 우리에게 웃음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리저리하게 영리한 유머를 고안했구나. 참 재치가 있네’라고 이해하는 경우와, ‘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불러일으켰군. 운이 좋아’라고 이해하는 경우는 그 작품의 경험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 4.4.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대립

커리의 이론을 통해 반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전제하는 의도주의적 해석이론이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았다. 이제 그러한 유형의 의도주의에 여전히 무관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무관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려면, (해석자의)심성-독립적인 작가의 의도가 존재한다는 실재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보되고, 그러한 가능성 위에서 작가의 의도는 작품 해석에 무관하다는 논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에 대한 반실재론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작품의 해석과 일관적이라도 우리의 추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작품의 의미와 어긋나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가 어긋나는 경우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겠냐고 묻는 방식의 무관련성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 ‘작가가 인간의 위대함을 구현하려고 의도했지만, 작품 그 자체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작품의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라고 묻는 반의도주의자에게, 반실재론적 의도주의자는 ‘작품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해석되었다면 그 해석과 일관되도록 구성된 작가의 의도는 결코 인간의 위대함을 구현하고자 함이 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무관련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반실재론적 의도주의자에게는, 작품-독립적인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를 확인한 후 그것이 작품 자체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아닌지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재론적 사고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관련성 문제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반의도주의가 제기한 무관련성 문제가 일견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좀 더 살펴보면 의도에 관한 실재론을 전제했을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작가의 의도’라는 실재론적 관념은 철학적으로 순진하게 들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반실재론적 의도주의가 이긴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반실재론적 의도주의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의미와 일관되도록 해석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와 같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비평적 평가들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점이 해석 이론의 치명적 단점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반의도주의는 반실재론적 의도주의가 더 이상 작가의 ‘실제 의도’를 존중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의 의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작품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의도주의는 엄밀히 말해 반의도주의의

에 포섭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의도주의가 그려내는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구분이 ‘작가의 실제 의도를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구분임을 인식하고, 그 구분이 과연正当한지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가설적’ 의도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반실재론적 의도주의들을 반의도주의에 포섭되도록 고안된 것은 아닌가? 또한 의도주의의 범주에는 오직 작가의 실제 의도에 관심을 가지는 극히 단순한 유형만 허용되도록 고안된 질문이 아닌가? 이 문제들에 답하지 않고서는 반실재론적 의도주의가 반의도주의에 포섭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무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는 각각 전제하고 있는 반실재론과 실재론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심도 있게 겨루어야 하며, 더 나아가 반실재론과 실재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해석적 장단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sup>13)</sup>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도주의가 우세했다. 반의도주의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주의는 현대의 유효한 의도 이론들을 도입해서 인식론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의 격전지는 무관련성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각자 전제하고 있는 반실재론과 실재론에 대한 궁극적인 고찰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

13) 의도주의의 모든 형태가 다 의도의 반실재론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 의도주의의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가 해석-독립적으로 확인되는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의 의미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극단적 의도주의는 반의도주의가 제기하는 의도의 무관련성 문제에 의해 쉽게 무너진다. 적어도 반의도주의와 겨뤄볼 수 있는 형태의 의도주의는 의도의 반실재론을 전제해야 하며, 이 문단에서 언급되는 의도주의도 바로 그러한 형태의 의도주의이다.

## 5. 나가며

필자는 작품 해석에 관한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을 그 안에서 전제되고 있는 상이한 의도 개념들을 밝히면서 재구성했다.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던지는 두 공격을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와 무관련성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 필자는 그것이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혔고, 의도주의가 대안적 의도 개념을 이용한다면 인식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후자에 대해서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전제하며, 반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도입하는 의도주의에게는 원천적으로 무관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 반의도주의의 주축을 이루는 두 문제들이 모두 특정 의도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의도주의의 승산은 그 특정 의도 개념들을 거부하면서 적절히 두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필자는 인식론적 문제에 있어서는 의도주의가 승기를 잡았으나, 무관련성 문제에 있어서는 의도에 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장단점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진영의 우세를 말하기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필자는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승부는 바로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의도에 관한 반실재론과 실재론을 겨루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Beardsley, M. (1981), *Aesthetics: Problems in the Philosophy of Criticism*, 2nd e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 \_\_\_\_\_ (1970),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Bratman, M. (1987), *Intention, Plans, and Practical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rrie, G. (1993), “Interpretation and Objectivity”, *Mind* 102, new series, pp. 413-428.
- \_\_\_\_\_ (1988), *An Ontology of Art*, London: Macmillan.
- Davidson, D. (1963), “Actions, Reasons, and Causes”, *The Journal of Philosophy* 60, pp. 685-700.
- Dickie, G. and Wilson, W. (1995), “The Intentional Fallacy: Defending Beardsle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 pp. 233-250.
- Fish, S. (1982),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yle, G. (1949),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
- Wimsatt, W., & Beardsley, M. (1946). “The Intentional Fallacy”, *The Sewanee Review* 54, pp. 468-488.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2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0일

Abstract

---

Intentionalism and Anti-Intentionalism:

Reformulating the Debate Focusing on the Concept of Intention

Shin, Hyun Joo\*

One of the central topics in analytic aesthetics regarding interpretations of artworks is the debate between intentionalism and anti-intentionalism. The two sides are in conflict concern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aning of an artwork is identical with the author's intention. Intentionalists argue that it is, while anti-intentionalists deny it. The debate has been evolved to a complex situation where any resolution seems out of sight, due to the fact that both are reluctant to discuss their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intention', while their arguments are valid only with the assumptions of their own. Given this, I find it necessary to disclose different notions of intention in each side and discuss which will lead to a better theory of interpretation. With this aim in mind, I begin by reformulating the debate as centered on two problems raised by anti-intentionalists. Concerning the 'epistemological problem', I show that the problem only works within the Cartesian notion of intention and examine whether intentionalists can solve it by adopting alternative notions. Concerning the 'irrelevance problem', I show that the problem is depend-

---

\* Lecturer, Department of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nt upon the realist notion of intention and examine whether intentionalists can avoid it by using the anti-realist notion. Finally, I argue that intentionalists can defeat anti-intentionalists regarding the first problem, while the debate is almost at a dead-end regarding the second, which then leads to my analysis on what should be examined further to achieve a breakthrough.

